

수성이나 탈환이나... 유권자 표심은 어디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지역 관전 포인트

여당 5차례 연속 승리할지, 야당 1석 이상 확보할지 촉각 '안정' vs '심판' 대결... 진보 표출됨·보수 결집 등 좌우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5차례 연속 승리를 만들어 낼지 아니면 야당이 1석이라도 건질지 주목되고 있다. 미례통합당에서 제주지역 3석 가운데 1석이라도 건질 경우 제주정치사에 한 획을 그어 된다.

지난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3개 선거구를 석권하는 저력을 과시하며 4차례 연속 야당 승리를 만들어 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지난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여당인 신한당 후보 3명 당선, 제16대 한나라당 1명과 새천년민주당 2명 당선, 제17대 열린우리당 3명 당선, 제18대 통합민주당 3명, 제19대 통합민주당 3명이 당선됐다.

제주 민심은 제17대부터 19대 4·11 총선까지 세번 연속 강창일, 김우남, 김재운 후보를 선택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이들은 모두 3선의 영예를 얻으며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는 김우남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고 김재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해 출마하지 못했다. 3선 의원 가운데 강창일 의원만 유일하게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 더민주 오영훈·위성곤 후보는 초선으로 당선됐다. 강 의원은 후진양성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총선에서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와 제주시을 선거구 오영훈 후보, 서귀

포시 선거구 위성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이 5차례 연속 승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제주시갑 선거구 장성철 후보, 제주시을 선거구 부상일 후보, 서귀포시 강경필 후보 중 1명 혹은 2명 이상 당선될 경우 제주도 정치사에 큰 획을 남기게 된다.

제주시갑 선거구인 경우 이전 총선에서는 보수 진영이 분열하고 진보 진영이 단일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전개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미래통합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원팀을 선언해

장성철 후보를 돕기로 했으나 진보진영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와 정의당 고병수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출마해 진보 표심이 분산된 상태이다. 통합당 경선후보들의 지원 정도와 선거막판 진보진영 표출됨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를 선거구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4년만에 재대결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투표일 당시 한국방송총회와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로 구성된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에서 출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가 민주당 오영훈 후보를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표 결과 오 후보가 부 후보를 2881표(2.9%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부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내내 오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표심을 자

극했고 이에 오 후보는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으로 판단,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해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맞섰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검사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막바지 보수표가 결집되면서 강지용 후보가 선전했으나 위성곤 후보를 이기지 못했다.

지난 3년간 경제가 후퇴하고 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며 현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미래통합당 후보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안정의 힘을 주는 투표를 해 줄 것을 부탁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15일 제주도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이제 선택의 시간... 투표소 설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제주시 연동 제7투표소인 남녕고등학교에서 공무원들이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총선 민심이 文 정부 정책 향방 가른다

여 "국정 운영 안정" 야 "독주 견제해야"

오늘(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인되는 민심은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국정운영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 계기로 작용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해 총선에 승리할 경우 집권 후반기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반대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 정책과 각종 개혁을 표방한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강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현재 제20대 국회 의석수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120석)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8석)의 의석이 128석으로 과반에 20석 정도 모자란다.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존 지역구를 사수하면서 격전지에서 승리하고 더불어시민당이 비례정당 투표에서 15석 이상을 확보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원내 1당과 과반수 의회를 구성하면 국회에서 법안·예산 심의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전대위원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선거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그동안의 20대까지 국회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국회가 될 것이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협조해 원내 1당과 과반수 의회를 구성하면 이제 야당의 발목잡기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막바지로 접어들며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미래통합당도 미래한국당을 포함해 과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두 당의 의석수가 112석(미래통합당 92, 미래한국당 20석)이어서 40석 가까이 획득할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만일 현실화된다면 야권이 제기해 온 정권 심판론에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만큼 정부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합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셔야, 국회의 견제력으로 위기를 헤쳐갈 수 있다"며 "이번 선거는 나라가 살 수 있는 길로 돌아가는 마지막 출구"라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정당득표 경쟁... 제주서 비례대표 의원 나올까

시민당 20석... 이상이 24순위 현애자·장하나 뒤이을지 관심

오늘(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당득표에 따라 선출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제주 출신이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비례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을 차지한다. 제주출신으로는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후보로 출마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제주 지역 국회의원 3명과 더불어 제주 국회의원 '4인 시대'를 열게 된다.

이 교수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천 심사를 받을 때 순위 14번을 받았다. 이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창당되고,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이 시민당으로 당을 옮기면서 당초 14위에서

24위로 순위가 재조정됐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4순위인 이 교수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30% 가까이 득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교수는 보건복지 분야 비례대표 후보로서 "의료공급의 공공성과 건강보험의 보장을 높여 국민이 행복한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출마표를 던진 바 있다. 이 교수는 4급 지체장애인으로 복지국가 운동에 지난 30년 동안 참여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 2002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자문교수,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복지특별단장을 역임했다.

제주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앞서 2004년 17대 국회 민주노동당 소속 현애자 의원과 2012년 19대 국회 민주당 소속 장하나 의원이 배출된 바 있다.

부미현기자

총선 다음날 임시국회 합의... 4·3특별법 운명은

긴급지원금 추경 처리 등 이인영 "20대 국회 내 통과"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 총선 다음날인 16일부터 국회가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민생 어려움 등을 감안해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 총선 기간 공언했던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도 이뤄질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총선 다음날인 16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문화상 국회의장에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구체적인 임시국회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후덕 수석부대표는 13일 "4월 임시국회 소집 목적은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라며 "민주당은 4월 내에 반드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처리해 5월 초에는 재난지원금이 실질 지급되도록 서두르겠다. 텔레그램 N번방 후속입법 등을 포함한 시급한 법안도 함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도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폐기 위기에 놓여있는 4·3특별법 개정안도 법안 처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3일 제주시갑 송재호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대 국회 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현장실무 전기공사 기능인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대상 - 모집 초기 마감될수있음 **근시일 모집 마감**

실업자 / 구직자
-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학생등 제외

교육기간
7월초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취업 | 7월 23일 종료과정 전원취업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won.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濟州) 리모델링 辛(辛)一(一)祚(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야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濟州) 리모델링 辛(辛)一(一)祚(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야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